

# 한국어 副詞類義語의 의미 차이

高 利 金

## 目 次

- I. 序 論
- II. 몇 개의 副詞類義語에 대한 의미 차이
  - 2.1. "다시, 또, 도로"의 의미 차이
  - 2.2. "이미, 벌써"의 의미 차이
  - 2.3. "아직, 여태"의 의미 차이
  - 2.4. "이미, 아직"의 의미 차이 분석
- III. 結 論

## I. 序 論

### 1.1. 연구 목적

단어의 意味는 간단히 결정되지 않는다. 물론 가장 보편적이며 핵심이 되는 공통적인 認識의 集合으로 中心意味<sup>1)</sup>가 설정되어 있지만, 단어는 항상 특정

1) 沈在箕外 2명(1984: 19~24)는 단어의 의미 유형을 中心意味, 聯想意味, 意圖의意味로 나누고 있다.

한 狀況과 文脈 속에서 특정한 機能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쓰인 條件을 검토하지 않으면 그 단어의 意味를 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 즉, 우리는 中心意味 외에 文脈과 狀況에 따라 몇 개의 非核心的 意味를 나타내는 聯想意味를 생각해야 한다.

어휘의 집성인 辭典도 文脈을 전제로 하고서 文脈 속에서 추출된 意味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어에 첨가된 具體的 意味란 文脈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다.<sup>2)</sup> 文脈은 단어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意味의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 뿐 아니라, 한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분된 意味 가운데서 어느 意味가 쓰여졌는지를 결정해 주는 구실을 한다.<sup>3)</sup> 그러므로 의미의 분석은 단어의 用法에 기초하여야 하며, 意味 그것이 나타나는 文脈과 場面の 분석을 함께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副詞類義語<sup>4)</sup>의 類義性和 異義性を 文脈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앞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副詞類義語들은 서로 그 뜻이 비슷하다고 여겨져 여러 文脈에서 代置되어 쓰이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差別的인 意味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즉, 각 副詞들에는 여러 가지 세분된 意味資質들이 있는데, 어떤 文脈에서는 각 副詞의 意味들이 공통되는 意味를 가져 서로 類義關係를 형성하지만, 또 어떤 文脈에서는 각 副詞의 고유한 意味資質들이 강하게 작용하여 代置가 불가능하거나 代置가 되어도 그 意味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단어의 意味가 文脈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文脈과 場面을 통해 副詞의 意味資質들을 추출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副詞類義語에 대한 연구<sup>5)</sup>를 살펴보았을 때, 분석된 意

2) 千時權·金宗澤(1971, 1988 : 63~64)

3) 남기심·이정민·이홍배(1977, 1984 : 154~155)

4) 여기서의 類義語는 部分類義語를 가리킨다. 대부분 서로 같은 意味資質에선 代置가 가능하지만, 含蓄的意味나 選擇制約등의 資質에선 구별됨을 뜻한다.

5) 崔銀圭(1985). 양인석(1977).

意味資質들이 다른 많은 文脈에서의 類義性和 異義性を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文脈意味와 場面の 分析을 소홀히 하여 몇 개의 文脈에 대한 관찰에만 끝났다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에서는 副詞의 成分分析을 시도하여 각 副詞들의 意味資質을 추출하고, 그들 副詞類義語들 사이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1.2. 연구 방법

몇 개의 副詞에 대한 의미 분석을 하기 위해 우선은 文脈에서 추출된 意味를 담고 있는 辭典을 통해서 意味資質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辭典意味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견되는 意味는 여러 文脈과 場面の 分析을 통해 意味資質을 부가·설정받게 된다. 즉, 순수한 言語의 文脈과 사회·문화적 여건까지 포함하는 言語外的 文脈(場面)이 고려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類義關係의 어휘를 代置함으로써 의미 차이를 검증하게 되는데, 이때 각 어휘 내의 세분된 意味資質 또한 그 타당성을 검증받게 된다. 이는 文脈에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각 副詞들의 고유한 意味資質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비록 몇 개의 副詞이지만 이들 각 副詞들의 成分分析을 통하여 그 고유한 意味資質을 밝히고 類義關係에 있는 또다른 단어와의 의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副詞類義語 연구에 보다 정밀한 접근을 시도하려고 한다.

本稿에서 다루게 되는 副詞로는 “다시, 또, 도로, 이미, 벌써, 아직, 여태” 등 7개에 한정하기로 한다.

## Ⅱ. 몇 개의 副詞類義語에 대한 의미 차이 분석

### 2.1. “다시, 또, 도로”의 의미 차이

#### 2.1.1. “다시, 또, 도로”의 成分分析

##### (1) 다시

4개의 國語辭典을 조사해서 종합한 결과, “다시”의 意味는 다음 8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4개의 사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들은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했고, 어느 하나의 사전에만 나타나는 의미는 따로 항목을 설정하였다. 나머지 6개의 부사들에 대한 사전의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기술하였음을 밝혀 둔다.

##### 1) 意味典辭

- ① (하던 것을) 반복하여 또, 되풀이해서 또.
- ② 한 번 거듭, 또 거듭.
- ③ 방법을 바꾸어서 새로이 또, 고쳐서 또, 새로이 또.
- ④ 있다가 또, 뒤에 또.
- ⑤ (중단한 것이나 일을) 또 계속하여, 하다가 그친 것을 또 잇대어.
- ⑥ 전과 같이.
- ⑦ 이전 상태대로 또, 본래에 있었던 어떤 상태대로 또.
- ⑧ 그 밖에는 또, 뒤에 더는.

##### 2) 成分分析

成分分析을 통하여 “다시”는 “되풀이해서 또”의 意味에서는 [+반복]의 意味資質을, “방법을 바꾸어서 새로이 또”의 意味에서는 [+개신]의 意味資質을, “하다가 그친 것을 잇대어”의 意味에서는 [+계속]의 意味資質을, 그리고 “전과 같이”에서는 [+원점회귀]의 意味資質을 갖는다. ⑧의 意味에서는 [+

한국어 副詞類義語의 의미차이

최종)의 意味資質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른 意味資質들이 서로의 意味領域을 넘나들면서 의미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것과는 달리 否定文에 서만 나타나 그 意味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3) 가능한 意味領域 추출

成分分析을 통해 “다시”는 [+반복] [+개신] [+계속] [+원점회귀] [+최종]의 意味資質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은 확실한 意味領域을 갖는 반면, 나머지 네 資質들은 많은 文脈에서 서로의 意味가 중첩되고 있다.

다음 도표에서 보이듯이 가능한 意味領域이 15가지로 추출될 수 있었다.

의미영역 의미자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반	복	+	-	-	-	+	+	+	-	-	-	+	+	+
개	신	-	+	-	-	+	-	-	+	+	-	+	+	-	+	+
계	속	-	-	+	-	-	+	-	+	-	+	+	-	+	+	+
원	점회귀	-	-	-	+	-	-	+	-	+	+	-	+	+	+	+

4) 用例

이제 각 意味領域에 따른 用例를 살펴보겠다.

① [+반복]

- ㄱ.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시 역설하신다.
- ㄴ. 오후에 다시 만납니다.
- ㄷ.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들 용례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② [+개신]

- ㄱ. 야, 너 다시 봐야겠다.
- 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 ㄷ. 다시 평범한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 용례들은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고쳐서 새로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ㄱ. 은 성적이 중간에서 맴돌던 친구가 1등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發話이다. ㄴ. 은 한국에 대해 否定的인 생각을 갖고 있던 외국인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한국의 역량에 대해 경탄의 눈으로 새롭게 보는 狀況이다. ㄷ. 은 지금 사위가 괴벽이 있는 예술가인데, 이로 인해 안정된 생활을 못하는 딸을 측은해 하며 어머니가 ‘진작에 이혼시켜 평범한 남자와 만나 살게 할 걸’ 하는 狀況에서 나온 發話이다.

③ [+계속]

[+계속]은 [+반복]과 [+원점회귀]를 전제로 하는 듯하다. “하다가 그친 것을 잇대어”의 意味에서 “같은 일의 되풀이”와 “이전 같이”란 狀況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③의 用例는 ⑩의 [+계속][+원점회귀]나 ⑬의 [+반복][+계속][+원점회귀]에서 논의될 수 있다.

④ [+원점회귀]

- ㄱ. 다시 찾은 우리 강산
- ㄴ. 철수가 죽인 개구리가 다시 살아났다.
- ㄷ.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듯 흐뭇했다.

이들 用例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意味는 과거 상태의 回復·復讐라는 점이다. ㄱ. 은 잃어버렸던 나라를 광복 8·15에 되찾은 狀況을 나타낸다. ㄴ. 은

개구리의 回生을, ㄷ. 은 晩婚의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중년남자들이 예전의 젊음을 되찾은 듯한 들뜬 분위기를 말해 준다.

⑤ [+반복][+개신]

- ㄱ. 주산을 다시 놓아 숫자를 맞추다.
- ㄴ. 다시 잘 반성하게.
- ㄷ.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목수가 되고 싶어.

이 경우는 “되풀이(반복)” 되는 意味 외에 “고쳐서 새로이(개신)”라는 意味가 부가된다. ②의 [+개신]과는 [+반복]에서 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⑥ [+반복][+계속]

위의 [+계속]의 意味資質은 먼저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된다는 狀況을 가리키므로 ⑬에서 논의될 수 있다.

⑦ [+반복][+원점회귀]

- ㄱ. 서울 돌레의 산에 봄이 다시 왔다.
- ㄴ. 봄은 이 가슴에도 다시 오겠지.
- ㄷ. 한 달 전 3년만에 다시 만났을 때.

이들 用例들은 같은 일이 이전처럼 되풀이되는 경우에 쓰이고 있다. 즉, “또다시”의 意味이다. “또다시”는 “다시”의 “또”라는 意味이다. ㄱ.에서 전처럼 봄이 온 것이 원점회귀 “다시”로,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또”로 나타나고 있다.

⑧ [+개신][+계속]

이 경우에 각각의 意味領域 ② [+개신]과 ③ [+계속]을 한꺼번에 만족시

켜 주는 用例는 보이지 않고 있다. ②의 특수한 用例를 빼고는 [+개선]과 [+계속]이 [+반복]과 [+원점회귀]의 意味資質을 많은 用例에서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⑨ [+개선][+원점회귀]

- ㄱ. 다시 잘 살아봅시다.
- ㄴ.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 ㄷ. 한민화는 회조가 받았을 상처까지 감지하고 우정의 손을 다시 건네려는 거다.

⑨에서는 “이전 같은” 狀況으로 돌아가되 새로운 마음, 새로운 방법으로 回復된다는 意味가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ㄱ., ㄴ.의 경우를 볼 때, 別居 중인 남편이 아내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면서 지금의 생활을 칭찬하고 옛날의 관계를 回復하자는 狀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ㄷ.은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狀況에서 여자 쪽에서 먼저 둘의 만남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⑩ [+계속][+원점회귀]

- ㄱ. 비가 그치자 하던 일에 다시 손을 댔다.
- ㄴ. 동호는 대답대신 다시 걷기 시작했다.
- ㄷ. 정류장에 잠시 정차했다가 다시 달리기 시작한 버스 안에서는.

⑩은 같은 일의 되풀이하기보다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 중단되었던 狀況이 이어지는 경우이다. ㄱ.은 비 때문에 중단되었던 일을 예전대로 계속하는 狀況이다. ㄴ.과 ㄷ.도 진행되던 어떤 움직임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본래와 같이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⑪ [+반복][+개신][+계속]

- ㄱ. 트럭이 배추를 싣고 집 앞길에 부려놓은 후 그것을 다시 큰 대야나 물통에 담아 날랐습니다.
- ㄴ. 구원의 남성을 찾아나섰다. 그러나 진이는 지족선사에게서 별로 신선한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송악산 밑 서화담을 찾아나섰다.

이들 用例에서는 중단되었던 狀況이 이어지나 그것이 새로운 대상, 새로운 방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ㄱ.에서는 배추를 나르고 있으나 “큰 대야나 물통에 담아서”라는 새로운 방법이, ㄴ.에서는 구원의 대상을 찾아나서는데 이번에는 “서화담”이라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나고 있다.

⑫ [+반복][+개신][+원점회귀]

여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用例가 보이지 않는다.

⑬ [+반복][+계속][+원점회귀]

- ㄱ. 다음날 아침 해장을 하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 ㄴ. 출혈만 겨우 그친 상태에서 다시 폭음을 한 것은.
- ㄷ. 이미 한 차례 끓고 난 물이 조금 식었다가 주전자의 전기장치에 의해 다시 끓기 시작한 것이었다.

⑬은 중단되었던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전과 같은 일의 되풀이일 때 나타나고 있다.

⑭ [+개신][+계속][+원점회귀]

이 경우는 [+개신][+계속]이 [+반복]의 意味資質을 함축하므로 ⑮에서 거론될 수 있겠다.

⑮ [+반복][+개신][+계속][+원점회귀]

- ㄱ. 회조는 상처를 접어 두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 ㄴ. 회조는 다시 긴장하여 술을 찾지 않고 약도 걸르지 않았다.
- ㄷ. 그 빈 자리에 모심기가 시작됐고 회조도 다시 흙으로의 여행을 떠났다.

⑮는 중단되었던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전과 같은 일을 새로운 마음가짐·방법으로 반복할 때 나타나는 경우이다.

⑯ [+최종]

- ㄱ. 다시 오지 않을 거야.
- ㄴ. 그것 말고 해결책이란 다시 없다.
- ㄷ. 다시 같은 결함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위의 用例들은 “마지막(최종)”이라는 뜻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때, <다시(는)~없다, 않다>의 형태로 뒤에 오는 서술어가 否定的인 意味일 때 주로 나타나고 있다.

(2) 또

1) 辭典意味

- ① (어떤 사물이나 동작이) 거듭하여서, 같은 짓을 거듭하여서.
- ② 그뿐이 아니고 다시 더.
- ③ 그래도, 상상외.
- ④ (단어나 문장을 이어주는 뜻을 나타내어) 그리고.

2) 成分分析

① [+반복]

- i) 단순 반복의 의미. (되풀이하여)
- ii) 같은 단어 되풀이하여 다수·다량  
·반복·연속·철저를 나타냄

② [-반복]

- i) '혹시'의 의미. ('또~몰라도'의 형식)
- ii) '반대'의 의미. (오히려, 이외로)
- iii) '앞선 것과는 다른'의 의미

③ [+나열]

- i) 대등연결(단어, 구, 절을 대등하게 이어줌)
- ii) 강조연결(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또”는 [+반복]의 意味資質에서보다는 [-반복]과 [+나열]의 意味에서 광범위한 쓰임을 보이고 있다. 辭典意味만 가지고서는 文脈에 사용된 “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文脈意味까지 고려하여 7가지로 “또”의 意味를 세분해 보았다.

3) 用例

① [+반복]

- i) 단순히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뜻을 나타낸다.
  - ㄱ. 클랙슨이 또 서너번 계속하여 울며 그를 재촉하고 있었다.
  - ㄴ. 비명소리가 또 들렸다.
  - ㄷ. 며칠 사이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 ii)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서 다수·다량·반복·연속·철저의 狀況을 나타낸다.
  - ㄱ. 투명한 유리를 또 닦고 하는 것이다.
  - ㄴ. 흰 눈이 한 송이 또 한 송이 소리없이 내린다.
  - ㄷ. 산 넘어 또 태산이로군.

ㄱ. 에서는 단어 “뒤고”를 반복하여 유리를 닦는 그 반복적인 동작과 유리를 더 투명하게 하려는 철저함을 표현하고 있다. ㄴ. 에서는 눈이 연속적으로 내리는 狀況을, ㄷ. 에서는 넘어야 할 산(어려운 고비)이 계속하여 눈 앞에 놓여져 있는 狀況을 말해 주고 있다.

※ (의문문) [+반복]의 意味資質을 갖는 경우, 앞선 狀況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불만, 의혹,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 ㄱ. 또 첫마디가 뭣하러 왔니래?
- ㄴ. 무슨 일이야, 또?
- ㄷ. 오늘은 또 무슨 바람이 불어 찾아왔는가?

② [-반복]

ⅰ) ‘또~몰라도’의 형식에서 ‘혹시’의 뜻을 갖는다.

- ㄱ. 홀몸이라면 또 몰라도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 ㄴ. 이른 봄이라면 또 모르려니와 이런 겨울철에 호박이 나오다니!

ⅱ) ‘반대’의 의미: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반하여, 이외로, 오히려.

- ㄱ. 형은 키가 큰데, 동생은 또 저렇게 키가 작다.
- ㄴ. 자신에 대해 이야기가 좀 많은 사람같기는 합니다만 거기 비하면 또 깊은 내력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 ㄷ. 난 또 누구라고.

ⅲ) ‘앞선 것과는 다른’의 의미.

- ㄱ. 장사장은 간부로 보이는 또 한 사람과 집으로 들어섰다.
- ㄴ. 아름다운 또다른 고향에 가자.
- ㄷ.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의 꿈을 출산하는 또 하나의 종족이다.

※ (의문문) [-반복]의 意味資質에서 다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나타낼 수 있다.

- i) '또~어떻고'의 형 : 역시 그렇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정도가 심함을 표현한다.
- ㄱ. 지금 나는 내 입술이 너무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제스처를 쓰는 손과 팔의 동작은 또 어떻게?
  - ㄴ. 걸이 이러니(경박함을 가리킴) 속은 또 어떻겠어?
- ii) 앞선 상황을 수증하면서 이번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의문을 표현한다.
- ㄱ. 그건 또 어째서요?
  - ㄴ. 한테 서선생이란 또 누구요?
  - ㄷ. 이건 또 얼마요?

③ [+나열]

- i) 대등연결 : 이 경우 "또"는 단어·구·절을 대등하게 이어준다.
- ㄱ. 산과 바다, 들과 강, 또 도시와 마을.
  - ㄴ. 국경도 없이 차별도 없이 또 세균학도 없이.
  - ㄷ. 여기저기서 기계들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명령받은 대로 삐걱거리면서 움직이고 있고, 때로 고장이나 사고가 일어나서…… 불뚱을 날리고, 또 때로는 서로 부딪쳐서…… 주저앉고 하는거죠.
- ii) 강조연결 : 2개 이상의 상황이 나열되는 경우 '앞선 상황뿐만 아니라 그 위에 다시 더'의 의미로 주로 뒷의미가 강조된다.
- ㄱ. 그는 어학자요 또 음악가이기도 하다.
  - ㄴ. 비가 오는데 또 바람까지 분다.
  - ㄷ. 개집애처럼 이쁘고 앳된 얼굴이었다. 게다가 그는 또 늘 소리를 내지 않고 웃었다.

※ (감탄문) : [+나열]의 意味資質에서 '게다가 또'의 의미로 그 정도가 심함을 표현한다.

- ㄱ. 내 표정은 한마디로 회끄무레해. 걸음걸이는 또 얼마나 경박한지.
- ㄴ. 거리의 과자점은 또 얼마나 매혹적이었던가.
- ㄷ. 개는 너무 이뻐. 공부는 또 얼마나 잘 하는지.

(3) 도로

1) 辭典意味

- ① 되돌아서서, 향하였던 쪽에서 돌아서 반대쪽으로 향하여.
- ② 본래와 같이 다시, 먼저와 다름이 없이, 먼저대로.

2) 成分分析

- [+원점회귀] : ① 방향  
                  ② 상태

3) 用例

① 방향

- ㄱ. 구경을 가다가 도로 왔소.
- ㄴ. 가던 길을 도로 오다.
- ㄷ. 가려다가 도로 왔소.

② 상태

- ㄱ. 빌려온 책을 도로 돌려주다.
- ㄴ. 팔았던 책을 도로 샀다.
- ㄷ. 울어 피를 뻘고 뻘은 피는 도로 삼켜.

## 한국어 副詞類義語의 의미차이

### 2.1.2. “다시, 또, 도로”의 의미 차이 분석

다음에는 각 부사에 따른 用例를 意味領域別로 하나씩 선택하여 해당 부사들을 代置시켜 보겠다. 이를 통해 우리는 副詞類義語 사이의 의미 차이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 (1) 다시

① ㄱ.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시 {또, \*도로} 역설하신다.

{+반복}의 意味資質을 갖고 있는 “다시”는 “또”와 代置되었을 때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다시”는 [+반복]에서 “또”와 類義關係를 형성한다.

② ㄷ. 다시 {\*또, \*도로} 평범한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경우에 “다시”는 [+반복]이나 [+원점회귀]의 의미가 전혀 없이 [+개신]의 의미만 가져 “또, 도로”와 代置될 수 없다. “다시”가 쓰이면, 지금의 남편이 과벽이 있는 예술가라는 狀況에서 새로이 평범한 남자를 만난다는 의미가 되지만, “또”가 쓰이면 평범한 남자를 전에도 만났었다는 반복적 狀況이 된다. “도로”가 쓰여도 그 意味는 어색하게 된다. 이처럼 “다시”는 [+개신]의 의미를 고유한 意味資質로 갖고 있다.

③ ⑩이나 ⑬에서 논의될 것이다.

④ ㄴ. 칠수가 죽인 개구리가 다시 {?또, 도로} 살아났다.

“다시”와 “도로”는 죽은 개구리가 먼저와 다름이 없이 살아났다는 回生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또”가 쓰이면 개구리의 回生이 전에도 있었다는 반복의 의미를 갖게 되어 “다시, 도로”가 쓰였을 때와는 다른 狀況의 意味를 전달하게 된다. [+원점회귀]의 意味資質에서 “다시”와 “도로”는 類義關係를 갖는다.

⑤ ㄱ. 주산을 다시 {또, ?도로} 놓아 숫자를 맞추다.

이 경우 “다시”와 “또”는 별 무리없이 代置되고 있다. 그러나 “다시”가 쓰이면 그 계산 과정에 있어서 새로이 잘 놓는다는 意味가 나타나는데 반해, “또”가 쓰였을 때는 단순히 주산을 놓는 행위 자체가 반복되는 意味를 준다. 즉, “다시”가 [+반복]의 意味資質을 “또”와 공유하여 文脈에서의 代置가 가능하다 “다시”에는 [+개신]의 意味가 고유하게 작용하여 “또”와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⑥ ⑬에서 논의될 것이다.

⑦ ㄱ. 서울 둘레의 산에 봄이 다시 {?또, ?도로} 왔다.

이 경우는 원점회귀가 반복되는 점에서 “또”와 “도로”가 쓰이면 불완전한 意味를 나타내는 것 같다. 반면, “다시”는 두 意味資質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어서 자연스런 文脈意味를 보여준다. 봄이 오는 것이 원상태로의 復歸이면서 되풀이되는 狀況을 나타내는데, [+반복]의 “또”나 [+원점회귀]의 “도로”는 각각의 고유한 意味資質만 충족시켜 줄 뿐, 서로의 意味領域까지 함축하지는 않고 있다.

⑧ ⑪이나 ⑮에서 논의될 것이다.

⑨ ㄱ. 다시 {또, ?도로} 잘 살아 봅시다.

⑨의 文脈意味는 이전 상태로의 回復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狀況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또”가 代置되어 쓰이면 “같은 일의 되풀이”라는 단순한 반복의 意味資質 때문에 전에도 잘 살았지만 이번에도 또한 잘 살아 보자는 뜻이 強調되어 나타나게 된다. “도로”가 代置되는 경우에는 과거로의 復歸라는 [+원점회귀]의 意味資質에서 類義關係가 성립될 듯하나, “다시”의 [=개신]의 意味가 강하게 작용하여 意味解釋이 어색하게 나타나고 있다.

⑩ ㄱ. 비가 그치자 하던 일에 다시 {?또, 돌} 손을 댔다.

⑩ ㄱ.은 중단되었던 狀況이 이어지면서 이전의 상태를 回復하는 意味를 나타낸다. 그래서 “또”가 쓰이면 단순히 일을 하는 행위가 반복됨을 뜻하게 되어 중단되었던 狀況이 계속되는 意味는 없게 된다. “도로”와의 代置인 경우에는 일을 했던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回復의 意味에서 “다시”와 類義關係를 갖는다.

⑪ ㄱ. 트럭이 배추를 싣고 집 앞길에 부려놓은 후 그것을 다시 {?또, ?도로}로 큰 대야나 물통에 담아 날랐습니다.

이때 “다시”는 [+반복][+개신][+계속]의 意味資質을 가지고, 트럭에서 큰 대야나 물통으로 그 방법이 바뀌지면서 배추를 나르는 행위가 계속됨을 나타내고 있다. “또”인 경우는 [+반복]의 意味가 강하게 작용하여 큰 대야나 물통으로 배추를 나르는 행위가 반복됨을 나타내게 된다. [+원점회귀]의 意味資質을 갖는 “도로”는 트럭으로 나르기 전 큰 대야나 물통으로 날랐었다는 意味를 함축하게 되어 “다시”가 쓰일 때의 文脈意味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⑫ 해당 用例가 보이지 않는다.

⑬ ㄱ. 다음날 아침 해장을 하며 다시 {또, 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또, 도로”의 代置가 모두 자연스럽다. 굳이 의미 차이를 분석하자면, “다시”는 [+반복][+계속][+원점회귀]에서 다음날도 여전히 술을 계속하여 마신다는 의미를, “또”는 [+반복]에서 술을 마시는 반복적 행위를, 그리고 “도로”는 [+원점회귀]에서 먼저와 같이 술을 마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것은 “또”와 “도로”와의 類義關係가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계속]의 意味資質을 갖는 “다시”를 매개로 하여 [+반복]의 “또”와 [+원점회귀]의 “도로”가 서로 代置가 가능하게 된 듯하다.

⑭⑮에서 논의될 것이다.

⑮ ㄴ. 회조는 다시 {또, ?도로} 긴장여 술을 찾지 않고 약도 걸르지 않았다.

⑮는 “다시”의 [+개신][+계속]이 [+반복]의 의미를 함축하면서, 또한 이전의 상태를 回復하는 점에서 [+원점회귀]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文脈意味는 도자기 제작을 하는 회조가 실연을 하여 좌절하게 되는데 오랜 마음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각오 아래 이전의 일을 계속한다는 狀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자세로 다시 계속하여”의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와 대치될 경우 단순히 일에 몰두하는 반복적 행위만이 강조되어 의미 해석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도로”인 경우는 “다시”의 [+계속]이 “전과 같이”란 의미를 강하게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와 [+원점회귀]의 意味資質에서 類義性을 보여주고 있다.

⑯ ㄱ. 다시 {또, 도로} 오지 않을 거야.

ㄴ. 그것 말고 해결책이란 다시 {또, \*도로} 없다.

⑯-ㄱ. 에서 “다시”가 쓰이는 狀況은 앞으로 더이상 오지 못한다는 마지막을

## 한국어 副詞類義語의 의미차이

나타내고 있다. “또”인 경우는 마지막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번에도 오지 않는다는 뜻을 갖기도 한다. “도로”가 쓰이면 방향의 [+원점회귀]에서 가던 참에 그냥 가버린다는 뜻만 있을 뿐, 마지막이란 의미와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인다. 이는 ㄴ의 상태 상황인 경우에 “도로”와의 代置가 불가능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또

“또”와 “다시, 도로”와의 代置 가능성의 有無는 “또”의 [+반복]의 意味資質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그들 副辭間의 類義性的의 문제는 “또”의 意味資質 [-반복][+나열]과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 ① ㄱ. 클랙슨이 또 {다시, \*도로} 서너번 계속하여 울며 그를 재촉하고 있었다.

“또”는 [+반복]의 意味資質에서 “같은 일의 되풀이”라는 뜻을 갖는다. 用例에서 클랙슨이 서너번 계속하여 우는 狀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때 [+반복]의 意味資質을 갖는 “다시”가 代置되어 쓰여도 文脈意味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때의 단순 반복의 狀況에서는 [+원점회귀] “도로”와의 代置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ㄱ. 투명한 유리를 닦고 또 {다시, \*도로} 닦는 것이었다.

②-ㄱ. 은 유리를 닦는 동작을 반복하여 청결에 철저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반복]의 의미에서 “다시”와의 代置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도로”와의 代置는 서로 공유하는 意味領域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3) 도로

- ① ㄱ. 구경을 가다가 도로 {다시, ?또} 왔소.
- ㄴ. 빌려온 책을 도로 (다시, ?또) 돌려주다.

{+원점회귀}의 意味資質을 갖는 “도로”는 “다시”와 “먼저와 다름이 없이, 전과 같이”의 의미에서 類義關係를 갖는다. ①, ②의 경우 “또”가 쓰이면 온(來) 행위와 책을 돌려준 행위가 반복됨을 나타내어, 文脈에서 “원상태로의 回復”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커다란 의미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또”와의 代置는 “도로”에 [+반복]의 의미가 없는 이유로 불가능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의미자질	의미영역	다 시		또	도 로
		다	시		
반	복	+		+	-
개	신	+		-	-
계	속	+		-	-
원 점 회 귀	귀	+		-	+
최	중	+		±	

2.2. “이미, 벌써”의 의미 차이

2.2.1. “이미, 벌써”의 成分分析

(1) 이미

1) 辭典意味

- ① 일정한 시간보다 앞서.
- ②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말할 때 “벌써”의 뜻으로 쓰는 말.

2) 成分分析

- ① [+시작완료] : 어떤 일이 시작됨이 완료됨.
- ② [+끝맺음완료] : 끝맺음이 완료됨

“이미”는 [+완료]의 意味資質을 가지고 [+시작]과 [+끝맺음]에서 의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완료라는 개념은 時制의 개념이 아니고 相(Aspect)<sup>6)</sup>의 개념이다.<sup>7)</sup> 時制가 외부의 시점인 基準時를 중심으로 선후위치가 결정되는 것에 반해, 相은 시간선상의 분포를 가리켜서 어떤 狀況의 여러 가지 내적 시간의 구성을 가리켜 준다. 그러므로, “이미”에 있어서도 그 의미는 基準時를 경계로 하여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내적 시간의 구성에 따라 나타난다. 즉, 시작이라는 내적 시간의 끝에 분포하는 [+시작완료]와 어떤 일이 마무리 되어지는 시간의 끝에 분포하는 [+끝맺음완료]로 나타날 수 있다.

3) 用例

① [+시작완료]

- ㄱ. 이미 차는 달려가고 있었다.
- ㄴ. 사람들이 이미 넓게 흩어져 번지고 있는 면회소 쪽으로 걸어갔다.
- ㄷ. 그는 가방을 집어 들고 이미 시동을 걸어놓은 트럭 위에 휩 올라 앉았다.

①의 用例들은 어떤 일의 시작이 완료되어 계속되는 狀況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끝맺음이 완료된 ②와의 의미 차이를 알 수 있다. ①-ㄱ.은

6) 표준국어문법에서는 동작상이라고 하고 있다.

7) 李翊燮·任洪林(1983 : 183)

차가 달려가고 있는 狀況을, ㄴ. 은 사람이 넓게 흩어져 번지고 있는 狀況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리고 ㄷ. 은 트럭의 시동을 건 상태가 계속됨을 나타내고 있다.

② [+끝맺음완료]

- ㄱ.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였다.
- ㄴ. 부처님 오신 날은 이미 며칠이 지난 후였다.
- ㄷ. 이미 가격은 내정(內定)된 듯했다.

②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끝나 있는 狀況을 나타낸다. 각 用例의 의미를 살펴보면, ㄱ. 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없는, ㄴ. 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났다는, 그리고 ㄷ. 에서는 가격이 내정된 狀況이 과거에 완료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2) 벌써

1) 辭典意味

- ① (다쳐온 시기나 시간이) 짐작보다 빠르다고 느낄 때, 어느새, 예상과 달리.
- ② 이미 그전에, 이미 오래 전에.

2) 成分分析

- ① [+완료]
- ② [+시작완료][+예상보다 빠르게]
- ③ [+끝맺음완료][+예상보다 빠르게]
- ④ [+예상보다 빠르게]

“벌써”는 “이미”의 意味資質을 공유하면서 또한 [+예상보다 빠르게]라는 고유한 意味資質을 가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벌써”가 “이미”가 쓰인 文脈

한국어 副詞類義語의 의미차이

에서 代置되어 쓰일 경우 “짐작보다 빠르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말할 때는 [+완료]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用例

① [+완료]

- ㄱ. 벌써 삼년 전 일이나 그때의 절망감이 지금도 이따금 엄습해 와요.
- ㄴ. 내 인생이란 그때부터 벌써 시든 성싶어.
- ㄷ. 그 죽음이사 서른 살 적에 벌써 다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② [+시작완료][+예상보다 빠르게]

- ㄱ. 술상을 봐달래서 북어찌개를 끓여 가져가니 벌써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 ㄴ. 편지와 우편물을 들고가니 회조는 벌써 맨발에다 팔뚝까지 흙을 묻힌 채 삼질을 하고 있었다.
- ㄷ. 환풍기는 벌써 돌아가고 있었고 제비는 그 속에서 날개도 펴지 못한 채.

이들 用例에서는 ㄱ. 이야기가 시작된 狀況, ㄴ. 삼질을 하고 있는 狀況, ㄷ. 환풍기가 돌아가는 狀況이 그 시작에 있어서 짐작보다 빠르다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③ [+끝맺음완료][+예상보다 빠르게]

- ㄱ. 하루는 불을 보러 갔더니 벌써 연탄이 갈려 있었다.
- ㄴ. 모내기하던 때가 어제처럼 생생한데 (벼들이) 벌써 재 몸을 거두어 자취가 없다.
- ㄷ. 원장은 그것도 벌써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이 경우 ㄱ.에서 연탄이 갈려 있는 狀況, ㄴ.에서 벽의 자취가 없는 狀況, ㄷ.에서 원장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狀況이 과거에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그 완료된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닥쳐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④ [+예상보다 빠르게]

- ㄱ. 추수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조들러네.
- ㄴ. 애기 많이 하시지 않고 벌써 나오셨어요?
- ㄷ.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땀이 벌써 식어 등이 서늘했다.

④는 [+시작완료][+끝맺음완료]에 상관없이 단순히 어떤 일이 예상과 달리 빨리 닥쳐왔음을 말해 주고 있다.

2.2.2. “이미, 벌써”의 의미 차이 분석

(1) 이미

- ① ㄱ. 이미 {벌써} 차는 달려가고 있었다.

이 두 副詞는 文脈代置가 가능하면서 “벌써”의 [+예상과는 빠르게]의 意味資質에서 의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는 [+시작완료]의 意味資質에서 차의 시발이 과거에 완성되어 일정시점까지 계속되는 狀況을 나타내는 반면, “벌써”는 그러한 의미와 더불어 차가 달려가고 있는 狀況이 짐작한 것보다 빨리 닥쳐왔다는 의미 해석을 낳게 한다.

- ② ㄱ.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벌써}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였다.

위에서 “이미”와 “벌써”의 代置는 자연스럽다. 의미 차이를 분석하면, “이미”의 경우 그가 눈을 뜨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간 일이 완료되었음을 단순

히 나타내는데, “벌써”가 쓰이면 학교에 간 게 생각보다 이르다라는 의미가 부가된다.

(2) 벌써

- ① ㄱ. 벌써 {이미} 삼년 전 일이나 그때의 절망감이 지금도 이따금 엄습해 와요.

이 경우 “벌써”와 “이미”는 단순히 어떤 일이 과거 삼년 전에 완료된 狀況을 가리키고 있다. “벌써”의 [+예상보다 빠르게]라는 의미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② ㄱ. 술상을 봐달라서 북어찌개를 끓여 가져가니 벌써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여기에서 “벌써”와 “이미”의 代置는 자연스럽다. 의미 차이를 살펴볼 때, “이미”가 쓰인 경우 단순히 이야기가 시작됨이 완료되었다는 文脈意味를 나타내는데 반해, “벌써”가 쓰이면 “이미”의 그러한 의미에다가 짐작보다 빨리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 부가된다.

- ③ ㄱ. 하루는 불을 보러 갔더니 벌써 {이미} 연탄이 갈려 있었다.

이때 “벌써”와 “이미”는 연탄을 가는 일이 과거에 마무리지어졌다는 [+끝맺음완료]의 意味資質을 공유하면서 類義關係에 있다. “벌써”의 경우는 연탄이 예상보다 빨리 갈려 있는 의미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미”가 쓰일 때의 文脈意味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④ ㄱ. 추수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미} 쪼들리네.

위에서 “벌써”는 어떤 일의 시작이나 끝맺음의 완료에 상관없이 단순히 살림이 궁색해진 상황이 짐작보다 빨리 닥쳐왔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래서, [+완료]의 資質을 갖고 있는 “이미”와는 그 代置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표를 통해 “이미”와 “벌써”와의 의미 차이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의미자질 \ 의미영역	이		미		벌		써	
	이	미	벌	써	이	미	벌	써
완								
료								
예상보다빠르게								

### 2.3. “아직, 여태”의 의미 차이

#### 2.3.1. “아직, 여태”의 成分分析

##### (1) 아직

###### 1) 辭典意味

- ① 때가 되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정도에 미처 이르지 못함.
- ② 이미 있던 어떤 상태가 변화없이 과거 그대로 지속됨.
- ③ (주로 <아니><못> 등과 함께)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르는 말.

###### 2) 成分分析

- ① [+긍정의 지속성]
- ② [+부정의 미착수]
- ③ [+시기상조]

위의 意味資質들은 1)의 辭典意味와 다음에 나오는 3)의 用例를 통해 설정해 본 것이다. ①의 意味資質은 시작된 일이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설정되었다. ②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은 때가 안 되었거나 미처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3) 用例

① ㄱ. 아직 겨울이다.

ㄴ. 아직 비가 오고 있다.

ㄷ. 홍선생이 아직 서울에 있으면 집에 일이 생겼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 用例는 ㄱ.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상황을, ㄴ. 비가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ㄷ. 부인이 전화하는 그 시간까지 홍선생이 서울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다.

② [+부정의 미착수]

ㄱ. 아직 안 왔다.

ㄴ. 아직 조반을 안 들었다.

ㄷ. 서울로 떠던 트럭은 아직 도착 안 했어.

이때 “아직”은 주로 否定文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일어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 각 用例를 살펴보면, ㄱ. 오는 일, ㄴ. 조반을 드는 일, ㄷ. 트럭이 도착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③ [+시기상조]

ㄱ. 방에 불을 때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ㄴ. 아직 좀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ㄷ.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③은 때가 안 되었거나 어떤 정도에 미처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用例를 살펴볼 때, ㄱ. 은 지금 방에 불을 났 때가 안 되었다는 상황을 가리킨다. ㄴ. 에서는 “밥이 다 되려면”이라는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의미 분석을 하면, 지금 밥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 ㄷ. 의 경우에도 또한 “그렇게 서둘러 말아라”라는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서둘러 어떤 일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2) 여태

1) 辭典意味

· 여태까지의 준말. 이제까지, 지금까지, 아직까지.

2) 成分分析

① [+과거상태지속][+부정의 미착수]

② [+과거상태지속][+기준시]

위에서 설정된 意味資質들은 “여태”의 用例와 “아직”과의 代置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다. ①, ② 모두 과거의 어떤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를 공통으로 가리키고 있으나, ②의 경우는 상태의 지속이 기준점이 되는 발화시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3) 用例

① [+과거상태지속][+부정의 미착수]

ㄱ. 그이는 여태 돌아오지 않았다.

ㄴ. 여태 그것밖에는 못했니?

ㄷ. 선생님 여태 안 오셨어요?

② [+과거상태지속][+기준시]

- ㄱ. 여태 기다리다가 방금 잠이 들었다.
- ㄴ. 돈 벌려고 여태 그렇게 작업했어요?
- ㄷ. 내 아내는 여태 내 뒷바라지만 하고 갔다.

2.3.2. “아직, 여태”의 의미 차이 분석

(1) 아직

- ① ㄱ. 아직 {여태} 겨울이다.
- ② ㄱ. 아직 {여태} 안 왔다.
- ③ ㄱ. 방에 불을 때기에는 아직 {\*여태} 시기가 이르다.

①, ②에서 “아직”과 “여태”는 과거에 있던 어떤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③에서 이 두 副詞의 의미 차이가 드러나는데 “아직” 이때가 안 되었거나 미처 어떤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는 뜻일 때 “여태”가 쓰이면 뜻이 통하지 않고 있다.

(2) 여태

- ① ㄱ. 그이는 여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 ㄴ. 여태 {\*아직} 기다리다가 방금 잠이 들었다.

위에서 [+과거상태지속]의 의미에서 “여태”와 “아직”은 代置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②에서 “여태”가 쓰였을 때는 상태의 지속이 발화시 현재까지로 한정되고 있는 반면, “아직”이 쓰이면 발화시 이후까지도 상태지속이 가능하다<sup>8)</sup>는 文脈意味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아직”의 意味資質에 있어서 [+지속성]의 의미가 강한 영향인 듯하다.

8) 崔銀圭(1985).

“벌써”의 상태지속시간이 [+기준시]까지인 것을 다음의 文脈意味의 차이에 설명할 수 있다.

※ ㄱ. 그는 여태 {\*아직, 아직까지} 과장이더니,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ㄴ. 여태 {\*아직, 아직까지} 춥다가, 오늘부터 날이 풀렸다.

위의 두 用例에서 각각의 기준시는 “이번”과 “오늘”이다. 이러한 기준시를 경계로 해서 ㄱ. 과장의 상태가 끝나고 있고, ㄴ. 추운 상태가 풀리고 있다.

그런데, “아직” 대신에 “아직까지”를 代置하면 “벌써”가 쓰였을 때의 文脈意味와 통하게 된다. “아직까지”는 “아직”의 과거상태지속 시간이 기준시 이후까지 가능한 것을 [+기준시]까지로 한정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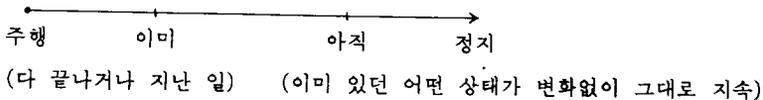
의미영역 의미자질	의미영역	
	아	적
과거 상태 지속	+	+
시 기 상 조	+	-
상태 지속 시간	기준시이후	기 준 시

#### 2. 4. “이미, 아직”의 의미 차이 분석

“이미”와 “아직”은 과거상태의 지속의 의미에서 代置가 가능할 듯하다. 즉, “이미”의 [+시작완료]와 “아직”의 [+긍정의 지속성]에 있어서이다. 그러나, 代置되어 쓰였을 때 나타난 의미는 내적 시간 구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인다.

- ① ㄱ. 이미 차는 달려가고 있었다.  
 ㄴ. 아직 차는 달려가고 있었다.

①-ㄱ.의 의미는 정지에서 주행으로 변하는 과정의 문턱 안에 들어섰음을 나타내는 반면, ①-ㄴ.의 의미는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가 앞으로 정지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의 내적 시간 구성을 보면, “이미” 차가 달려가고 있는 상태가 “아직” 그대로 지속되면서 앞으로 정지하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② ㄱ. 아직 겨울이다.  
 ㄴ. 이미 겨울이다.

②에서도 또한, ㄱ.이 지금은 겨울이지만 앞으로 봄이 올 것을 예고하는 의미인 반면, ㄴ.은 가을에서 겨울로 변하는 과정의 문턱 안에 들어섰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가을이 지나고 “이미” 겨울이 되어 그 상태가 “아직” 그대로이지만, 이제 멀지않아 봄이 오리라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시간 구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다.



즉, “이미”의 文脈意味는 “아직”이 쓰인 文脈意味보다 그 상황이 앞서 있다는 점에서 의미 차이를 보여준다.

### Ⅲ. 結 論

이상으로, “다시, 또, 도로, 이미, 벌써, 아직, 여태” 등의 7가지 副詞類義語에 대해 그 意味資質 추출과 의미 차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특히, 단어의 의미가 文脈을 통해서 具體的 意味를 갖는다는 관점에서 가능한 많은 用例를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인 意味資質을 추출해 내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분석된 意味資質들은 類義關係에 있는 副詞들이 서로 代置되어 쓰인 文脈의 意味를 통해 그 類義性和 異義性이 설명될 수 있었다.

이제까지의 논의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시”는 “또”와 [+반복][+최종]의 意味資質에서 類義關係를 갖는다. 반면 “도로”에 있어서는 [+원점회귀]의 의미에서 “다시”와 類義性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또”와 “도로”가 代置되어 쓰일 때가 있음이 새롭게 드러났다. “다시”가 [+반복][+계속][+원점회귀]의 意味資質을 갖는 文脈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다시”의 意味資質 [+계속]의 영향인 듯하다.

둘째, “이미, 벌써”는 [+완료]의 의미를 공유하여 代置되어 쓰이고 있으나, “벌써”가 사용되면 [+예상보다 빠르게]라는 의미를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이때, “벌써”는 “이미”와 대치될 수 없는 고유한 意味資質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 “아직”과 “여태”는 [+과거상태지속]의 意味資質을 공유한다.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意味資質에서 “여태”와 의미 차이를 보인다. “여태”에 있어서 상태 지속 시간이 [+기준시] 까지라는 의미가 文脈에서 나타나는 때에는 “아직”과의 代置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직까지”와는 代置가 자연스러운데 그것은 “아직”의 상태 지속 시간이 기준시 이후까지 가능한 것을 “아직까지”는 기준시까지로 한정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미”와 “아직”과의 代置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미"가 과거 어떤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반면, "아직"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어떤 상태가 변화없이 그대로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미"의 文脈狀況은 "아직"의 文脈狀況보다 그 시점이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 參 考 文 獻

- 남기심·이정민·이홍배(1977, 1984), 「언어학 개론」 탐출판사.
- 서정수(1975), 국어 부사류의 구문론적 연구, 南基心·高永根·李翊燮 共編 (1975) 現代國語文法(論文選) 啓明大出版部.
- 沈在箕·李基用·李廷玟(1984), 「意味論序說」 集文堂.
- 양인석(1977), 韓國語 副詞의 意味分析, 「李崇寧先生古稀記念 國語國文學論叢」
- 李基用(1976), '時間論: 「지금」의 意味,' 高영근·남기심 공편(1983), 국어의 통사·의미론. 탐출판사.
- 李翊燮·任洪彬(1983), 「國語文法論」 學研社.
- 千時權·金宗澤(1971, 1988), 「國語意味論」 螢雪出版社.
- 崔銀圭(1985), 現代國語 類義語의 意味構造 研究, 國語研究 67, 國語研究會.
- 신기철·신용철(1974, 1985), 「새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편(북한, 1981), 「현대조선말사전」 도서출판 백의 (서울, 1988)
- 이희승(1961, 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한국어사전편찬회(1976, 1980), 「한국어대사전」 玄文社.